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심상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20),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31(2), 1-32.

초록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pronoun-nominal phrase)’ 구조와 관련된 세 가지 이슈를 다룬다. 첫째,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때 동사는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일치(unagreement)’ 또는 ‘1,2인칭 일치’ 현상을 통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더 나아가 본고의 분석이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본다. 둘째, 복수 1,2인칭대명사만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이 가능하고 복수 3인칭대명사와 단수 1,2,3인칭대명사는 출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하여 설명을 제시한다.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한 분석은 ‘대명사-명사구’ 구조와 관련하여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어에서 명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인칭대명사를 한정사로 분석하는 Postal(1969)의 분석은 {nosotros/vosotros} los coreanos처럼 복수 1,2인칭대명사와 정관사가 동시에 출현하는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고의 분석은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복수 1,2인칭대명사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대명사-명사구’ 구조를 형성할 때 두 요소가 어떤 방식을 통해 결합하고 또 어떤 식으로 동사에게 복수 1,2인칭 일치를 유발하는지를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Chomsky(2013, 2015)의 표찰 알고리즘(labeling algorithm)에 입각한 Hiraiwa(2017)의 분석을 소개한 다음 그의 분석은 스페인어의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핵심어 대명사-명사구 구조, 불일치 현상, 형태적 복잡성, 표찰 알고리즘

* 본고에 대해 날카롭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분의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러시아어 자료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서상국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밝힌다.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pronoun-nominal phrase)’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los coreanos와 같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때 동사는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unagreement)’ 또는 ‘1,2인칭 일치’ 현상을 통사적 관점에서 설명한 다음 이 분석이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둘째,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복수 1,2인칭대명사 nosotros, vosotros만 출현이 가능하고 복수 3인칭대명사 ellos/ellas와 단수 1,2,3인칭대명사 yo, tú, él/ella는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대명사-명사구’ 구조와 관련하여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가 제법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를 형태적 복잡성(morphological complexity) 차이에 입각하여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Postal(1969)이 영어에서 명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인칭대명사(we linguists)를 한정사(determiner)로 분석한 이래로 그의 분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용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의 분석을 스페인어에 적용하고자 할 때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을 지적한 다음 본고에서 제시하는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한 분석이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셋째, 복수 1,2인칭대명사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대명사-명사구’ 구조를 형성할 때 두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결합하고 또 어떤 식으로 동사에게 복수 1,2인칭 일치를 유발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Chomsky(2013,2015)의 표찰 알고리즘(labeling algorithm)에 입각한 Hiraiwa(2017)의 분석을 소개한 다음 그의 분석은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가 보여주는 1,2인칭 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불일치(unagreement) 현상

영어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복수 무관사 명사구(bare plural NP)는 원칙적으로 3인칭 해석을 받는다.

- (1) Linguists explore the nature of language.

(1)에서 복수 명사구가 3인칭 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1,2인칭 대용사(=재귀대명사) ourselves, yourselves는 주어에 의해 결속될 수 없고 3인칭 대용사 themselves만 주어에 의해 결속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 (2) Syntacticians take {themselves/ *ourselves/ *yourselves} too seriously, don't
 {they/ *we/ *you}?
 (Radford 2004:114)

따라서 영어에서 복수 무관사 명사구가 1,2인칭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 we/us, you가 명시적으로 출현해야만 한다.

- (3) a. {We/Us} linguists explore the nature of language.
 b. You linguists like to argue.

(3)처럼 명사 앞에 인칭대명사가 출현하는 구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동안 Adnominal Pronoun Constructions(cf. Höhn 2016, Höhn *et al.* 2017), Pronoun-Noun Constructions(cf. Puckika 2013, Choi 2014, Hiraiwa 2017), Complemented Pronoun Constructions(cf. Szabolci 2007) 등이 사용되어 왔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일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대명사-명사구’ 구조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1. 스페인어

한편, 스페인어는 영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주어로 기능하는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하지 않

더라도 1,2인칭 해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cf. Torrego 1996, Ordóñez & Treviño 1999). 아래 예에서 동사가 복수 3인칭뿐만 아니라 복수 1,2인칭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 (4) a. Los españoles {**tiramos/ tiráis/ tiran**} a la basura cada semana
25 millones de kilos de alimentos.
- b. Los mexicanos {**tenemos/ tenéis/ tienen**} mucha suerte.
- c. Los españoles y los mexicanos {**tenemos/ tenéis/ tienen**} muy
buena química en el trabajo.

뿐만 아니라 아래의 예에서 주어 los estudiantes가 nos, os와 동지표 (coindexing) 된다는 사실 또한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하지 않더라도 1,2인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준다.

- (5) a. [Los estudiantes]_i salimos de la reunión después de que {nos_i/*los_i}
acusaran.
- b. [Los estudiantes]_i salisteis de la reunión después de que {os_i/*los_i}
acusaran.

(Ordóñez & Treviño 1999:59)

그리고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는 현상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후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6) a. Ayer llegamos los españoles.
- b. Firmamos los lingüistas la carta.
- c. Son muchos los que están comparando en redes la situación de estos refugiados con la que vivimos los españoles durante la Guerra Civil.
- d. Tenemos que unirnos los mexicanos.
- (a) Rivero 2008:229,
- (b) Torrego 1996:114,
- (c) http://verne.elpais.com/verne/2015/08/25/articulo/1440511017_879100.html

(d) <https://www.elfinanciero.com.mx/nacional/amlo-se-reune-con-meade-tenemos-que-unirnos-los-mexicanos>

심지어 아래 예에서 보듯이 주어로 쓰인 명사구(*toda la familia, la mayoría*)가 문법적으로 단수인 경우에도 복수 1,2인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toda la familia*와 *la mayoría*가 비록 문법적으로는 단수지만 의미적으로는 복수 즉,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 ‘우리 스페인 사람들 중 대다수’로 취급되기 때문일 것이다.

- (7) a. Nos hemos contagiado *toda la familia* por una negligencia.
<https://elpais.com/sociedad/2020-03-26/nos-hemos-contagiado-toda-la-familia-por-una-negligencia.html>
- b. *La mayoría de los españoles* estamos orgullosos de la Guardia Civil.
<http://www.pp.es/actualidad-noticia/mayoria-espanoles-estamos-orgullosos-guardia-civil>

이처럼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주어일 때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1,2인칭 일치(first second agreement)”(cf. Torrego & Laka 2015) 또는 “불일치(unagreement/anti-agreement/disagreement)”(cf. Hurtado 1985, Höhn 2016, Höhn *et al* 2017, Saab 2013)가 사용된다.¹⁾ 학자들

1) 한정적 복수 명사 이외에 비한정사, 양화사 등이 복수 명사구 앞에 출현하는 경우에도 동사는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될 수 있고 복수형 의문사 단독으로도 복수 1,2인칭 일치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시대명사가 관계절의 선행사로 사용된 경우에도 1,2인칭 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후치주어로 기능할 때에도 1,2인칭 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cf. (ii)).

- (i) a. {Muchas/ Varias} amigas {asistimos/ asistís/ asisten}.
- b. ¿{Cuántas/ Cuáles} {asistimos/ asistís/ asisten}?
- c. Algunos pacientes {hemos/ habéis/ han} llamado a la doctora.
- d. Todos niños {creemos / creéis/ creen} en los Reyes magos.
- e. Aquellos que quisimos entramos.
- ((a),(b) from Torrego & Laka(2015:642-643), (c), (d) from Höhn(2012:4), (e) from Martínez(1999:2765))
- (ii) Hablamos *my pocos* durante el viaje.
 (=Fuimos pocos los que hablamos; la mayoría guardó silencio)

이 “불일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칭과 관련하여 복수 명사가 지닌 “기본 값(default value)”을 3인칭으로 보기 때문이다(cf. Höhn 2016).

복수 명사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칭 값이 3인칭임을 감안할 때 (4)-(7)과 같은 예에서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1,2인칭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 복수 명사구에게 복수 1,2인칭 해석이 부여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잘 알다시피 스페인어에서 일치를 유발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문법적 주어다. 최소주의 식으로 설명하자면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구의 *o*-자질은 해석자질(interpretable feature)이고 동사(더 정확히 말해 Tense)에 표시된 *o*-자질은 비해석자질(uninterpretable feature)이므로 동사에 표시된 *o*-자질은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구가 지닌 *o*-자질의 반영체(reflex)에 불과하다. 따라서 (4)-(7)처럼 주어는 기본적으로 3인칭을 지닌 요소인데도 동사가 1,2인칭으로 표시되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아무튼 스페인어에서 동사의 형태는 주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4)-(7)에서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어떤 형태로든 1,2인칭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의미 값이 3인칭인 한정적 복수 명사가 어떻게 1,2인칭 해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Ackema & Neeleman(2013)과 같은 학자들은 주어가 동사의 자질을 통제한다는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사 자질과 주어 명사구 자질간의 부조화(feature mismatch)는 실제로 존재하며 본고에서 다루는 ‘불일치’ 현상이 바로 이런 자질 부조화 사례라고 주장한다.

한편, 연구자는 (4)-(7)과 같은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 (8)에서 보듯이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nosotros, vosotros/ustedes)가 명시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 (8) a. *Nosotros* los mexicanos *tenemos* mucha suerte.
 b. *Vosotros* los mexicanos *tenéis* mucha suerte.
 c. *Ustedes* los mexicanos *tienen* mucha suerte.

이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4)-(7)에서도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실제로 존재하며 다만 이들이 문자화(spell-out)/음성화되지만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래에서 보듯이 명시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는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출현하여 동사에게 1,2인칭 일치치를 유발한 다음 나중에 음성형태부(PF)에서 이들이 삭제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 (9) a. {~~Nosotros/Vosotros~~} los españoles {estamos/estáis} orgullosos.
(Syntax)
- b. {~~Nosotros/Vosotros~~} los españoles {estamos/estáis} orgullosos.
(PF)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굳이 문자화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연구자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 탈락(*pro-drop*)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페인어에서 주어 인칭대명사의 탈락은 흔한 일이다. 이는 주어 위치에 분명 인칭대명사가 존재하지만 동사의 ‘풍부한 일치소(*rich Agr*)’를 통해 인칭대명사의 인칭과 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조나 대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칭대명사를 굳이 음성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Los mexicanos tenemos mucha suerte”와 같은 예에서도 *nosotros*가 *los mexicanos* 앞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동사(*tenemos*)를 통해 *los mexicanos* 앞에 *nosotros*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강조나 대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문자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PF에서의 삭제는 언어 경제적 관점에서 중복성/인여성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작용인 셈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언론 기사를 검색해본 바로도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될 때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하는 사례(가령, ¿Crees que nosotros los españoles somos racistas y engrèidos?)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처럼 주어로 기능하는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의 복수 1,2인칭대명사가 생략되는 이유가 스페인어의 *pro*-탈락 특성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1,2인칭 해석을 받으려면 복수 1,2인칭대명사의 명시적 출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아래에서 보듯이 목적격 인칭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10) A: ¿Has acusado a Pedro? – B: Sí, *(lo) he acusado.

그 이유는 주격 인칭대명사는 생략되더라도 동사의 풍부한 굴절소를 통해 생략된 인칭대명사의 인칭과 수에 관한 정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목적격 인칭대명사를 생략하게 되면 동사를 통해 생략된 인칭대명사의 인칭과 수에 관한 정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담화 상에서 생략된 목적격 인칭대명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격 대명사의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스페인어에서 생략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생략되는 인칭대명사의 인칭, 수에 관한 정보가 동사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목적어로 기능할 경우에는 기본 값인 3인칭 해석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측은 들어맞는다. 아래에서 보듯이 목적어 *los mexicanos*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하지 않으면 *los mexicanos*는 화자(speaker)나 청자(addressee)가 배제된 3인칭 해석만 받을 수 있다.

(11) Donald Trump odia a los mexicanos.

≠ Donald Trump odia a {nosotros/ vosotros/ ustedes} los mexicanos.

(11)에서 목적어 *los mexicanos*가 3인칭 해석만을 받는다는 것은 아래 (12a)와 (12b)의 대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12a)에서 목적어 *los estudiantes*는 *ellos*와 지시를 공유하지만 *nosotros*, *vosotros*와는 지시를 공유할 수 없다. *los estudiantes*가 *nosotros*, *vosotros*와 동일한 지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12b)에

서 보듯이 자신의 앞에 *nosotros*, *vosotros*가 출현해야만 한다.

- (12) a. Acusaron a **los estudiantes**_i después de que se peleasen con
 {**ellos**_i/ **nosotros*_i/ **vosotros*_i}.
- b. Acusaron a {**nosotros/ vosotros**} **los estudiantes**_i después de
 que hablasen de {*nosotros*_i/ *vosotros*_i}.
- (={**Nos/ Os**} acusaron a **los estudiantes**_i después de que
 hablasen de {*nosotros*_i/ *vosotros*_i})
- (Ordóñez & Treviño 1999:59, 60)

다시 말해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와 달리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본 값인 3인칭 해석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로 쓰였을 경우 1,2인칭 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의 명시적 출현을 필요로 한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한정적 복수 명사구의 1,2인칭 해석 가능성과 관련한 주어와 목적어 간의 대조는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출현하는 복수 1,2인칭대명사의 생략이 스페인어가 지닌 *pro*-탈락 특성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2. 한국어, 영어

이번에는 한국어가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스페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주어로 기능하는 복수 명사가 1,2인칭 해석을 받으려면 자신의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의 명시적 출현을 필요로 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문맥이 사전에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out of the blue context)에서는 주어 ‘청년들’은 3인칭으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어가 1,2인칭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 ‘우리/너희’의 출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는 스페인어보다는 영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3) (out of the blue context)

청년들은 사회 정의를 염원한다.

≠ {우리/너희} 청년들은 사회 정의를 염원한다.

이처럼 사전에 문맥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 명사가 주어로 기능할 때 자신의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출현하지 않으면 3인칭으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아래의 동지표 현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²⁾

(14) (out of the blue context)

- a. [청년들은]_i {그들 자신을_i/ ^{??}우리 자신을_i/ ^{??}너희 자신을_i} 자랑스럽게 여긴다.
- b. [우리 청년들은]_i [우리 자신을]_i 자랑스럽게 여긴다.
- c. [너희 청년들은]_i [너희 자신을]_i 자랑스럽게 여기니?

이처럼 스페인어와 달리 한국어는 주어로 기능하는 복수 명사가 1,2인칭 해석을 받으려면 자신의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우리/너희)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한국어도 스페인어처럼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언어이기는 하나 주어 생략 방식이 스페인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주어 생략은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지를 담화 상에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페인어와 다소 다르다. 즉, 한국어는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만 생략된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한 정보를 회복할 수 없다.

(15) A: 철수가 오늘도 지각했니?

B: 아니, (그가/철수가)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어.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한 정보가 동사에 형태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문맥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어로

2) 이 예문의 문법성에 대해 연구자는 한국인 화자 8명(언어 전공 교수 4, 대학원생 2, 일반인 2)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중 7명이 (14a)에서 ‘청년들은’이 복수 1,2인칭 재귀사와 같은 지시를 가지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기능하는 복수 명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해야만 1,2인칭 해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수 명사는 복수 명사의 의미적 기본 값인 3인칭 해석만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앞에서 보았듯이(cf. (1),(2)) 영어에서도 주어인 복수 명사가 1,2인칭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의 명시적 출현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도 한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16) Koreans don't want a trade war with Japan.
≠ {We/You Koreans} don't want a trade war with Japan.

비록 영어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동사가 형태적 변화를 겪기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적 변화가 주어의 인칭과 수를 정확히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령, are만으로는 단수 2인칭 you, 복수 2인칭 you, 복수 3인칭 they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는 스페인어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일치 형태(poor agreement morphology)를 지닌 언어로 여겨진다(cf. Chomsky 1993, 1995). 이처럼 동사의 형태만으로는 주어의 인칭과 수를 충분하게 나타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로 기능하는 복수 명사 앞에 추가적으로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해야만 그 복수 명사가 1,2인칭 해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미 값인 3인칭 해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3. 이탈리아어

그런데 이탈리아어가 보여주는 현상은 지금까지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탈리아어도 '풍부한 일치소'를 지닌 언어이고 따라서 스페인어와 함께 대표적인 *pro*-탈락 언어로 분류된다. 그런데 스페인어와 달리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때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 noi, voi가 출현하지 않으면 3인칭 해석만 부여받을 수 있다. 즉, i linguisti 'the linguists'는 3인칭 해석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페인어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아래의 예에서 동사가 3인칭 복수로만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cf. Torrego & Laka 2015, Höhn *et al.* 2017, etc.).

- (17) I linguisti {*studiamo/ *studiate/ studiano} la natura del linguaggio.

the-pl linguists study-1pl / study-2pl / study-3pl the nature of the language

‘Linguists study the nature of the language.’

(Höhn *et al.* 2017:264)

따라서 이탈리아어에서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1,2인칭 해석을 받으려면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의 명시적 출현을 필요로 한다. 단, 이때 정관사는 출현할 수 없다.³⁾

- (18) a. Noi (*i) linguisti studiamo la natura del linguaggio.

‘We linguists study the nature of language.’

- b. Voi (*i) linguisti studiate la natura del linguaggio.

‘You linguists study the nature of language.’

연구자가 스페인어에 대해 제시한 분석대로라면 이탈리아어도 스페인어만큼 ‘풍부한 일치소’를 지닌 언어이므로 (17)에서 i linguisti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 noi, voi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스페인어와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17)은 연구자의 분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

3) Choi(2014), Höhn(2016)에 따르면 ‘불일치’ 현상은 정관사의 출현과 관련이 깊다. 스페인어, 현대 그리스어처럼 ‘대명사-명사구’ 구조에서 명사 앞에 정관사의 출현을 요구하는 언어만 ‘불일치’ 현상을 보여주고 이탈리아어처럼 정관사의 출현을 요구하지 않는 언어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i) a. Nosotros **(los)** coreanos

b. Emeis ***(oi)** glossologoi (현대 그리스어)

we the linguists

‘We linguists’

(Höhn *et al.* 2017:265)

4) ‘불일치’ 현상과 관련한 두 언어의 대조는 pro-탈락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 현상을 허용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다. 연구자는 이탈리아어가 *pro*-탈락 언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를 3.3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I. 복수 3인칭대명사/단수 1,2,3인칭대명사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관심을 크게 끄는 점은 복수 1,2인칭대명사와 달리 복수 3인칭대명사(*ellos/ellas*)와 단수 1,2,3인칭대명사(*yo, tú, él/ella*)는 이 구조에 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⁵⁾

- (19) a. **Ellos los coreanos* no quieren una guerra comercial con Japón.
- b. **Yo el filósofo* quiero ganarme la vida.
- c. **Tú el filósofo* quieres ganarte la vida.
- d. **Él el filósofo* quiere ganarse la vida.

왜 복수 3인칭대명사와 단수 1,2,3인칭대명사는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할 수 없는 것일까?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퍼즐을 풀어보고자 한다.

1.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한 분석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연구자가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복수 1,2인칭대명사와 복수 3인칭대명사/단수 1,2,3인칭대명사가 보여주는 형태적 복잡성(morphological complexity)의 차이이다. RAE(<https://dle.rae.es/>)에 제시된 어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복수 1,2인칭대명사는 두 개의 독립된 형태소로 구성된 대명사다(bimorphemic pronoun).⁶⁾

5) 단, 3인칭대명사와 명사 사이에 휴지(pause)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동격(apposition)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문이다.

(i) *Ellos, los coreanos, no quieren una guerra comercial con Japón.*

6) 고대 스페인어에서 *nos*는 오늘날의 *yo*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nos*와 *otros*의 결합은 ‘나와 다른 사람들’ 즉, ‘우리(들)’의 의미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vos*는 오늘날의 *tú*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vos*와 *otros*의 결합은 ‘너와 다른 사람들’ 즉, ‘너희(들)’의 의

- (20) a. nosotros = nos + otros
b. vosotros = vos + otros
c. ustedes = vuestras + mercedes

반면에 복수 3인칭대명사 ellos, ellas는 라틴어 illōs, illās에서 기원한 것으로 단일 형태소 대명사다(monomorphemic pronoun).⁷⁾ 그리고 단수 1,2,3인칭대명사도 모두 단일 형태소 대명사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주목하여 복수 1,2인칭대명사는 최대투사(XP) 유형의 대명사이고 반면에 복수 3인칭대명사와 단수 1,2,3인칭대명사는 핵(X°) 유형의 대명사로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 가능 유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Postal(1969)은 아래 예에서 보듯이 영어에서 인칭대명사가 복수 명사 앞에서 정관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칭대명사를 한정사(determiner, 이하 D; 논문 발표 당시 용어는 definite article)로 분석한다.⁸⁾

- (21) a. He didn't like us Americans.
b. Who insulted you men?
(Postal 1969:218)

Postal이 이렇게 주장한 이후로 we men, we Americans, you linguists, you guys와 같은 표현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명사를 한정하는 인칭대명사를 D로 분류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되었다(cf. Pesetsky 1978, Abney 1987, Kayne 1994, Radford 1997, Roehrs 2005).⁹⁾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1,2인칭대명사도 정관사

미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usted 역시 Vuestra와 Merced이 합쳐져 축소된 형태인 vusted에서 도출된 것이다.

(cf. <http://etimologias.dechile.net/?nosotros>, <http://etimologias.dechile.net/?vosotros>)

7) <https://en.wiktionary.org/wiki/ellas#Spanish>

8) Postal(1969)는 인칭대명사만 홀로 출현하는 경우(예: him)에도 인칭대명사를 한정사로 분석한다.

(i) [NP [D him] [N Ø]]

9)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we men과 같은 표현을 동격(apposition)의 경우로 보는 편인데(cf. Quirk et al 1985:352) Postal(1969:217-219)은 we men은 ‘we, who are men’과 같은

나 지시사처럼 자신의 앞에 보편 양화사(universal quantifier) all의 출현을 허용한다는 사실과 복수 1,2인칭대명사와 정관사/지시사가 상보적 분포를 한다는 사실은 Postal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cf. Puckika 2013). 왜냐하면 둘 다 D에 속한다고 보면 둘이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2) a. all {we/you} students.
b. all {those/the} students.
(Huddleston & Pullum 2002:374)

- (23) a. *{we/you} the linguists.
b. *{we/you} these linguists.

앞에서 연구자는 복수 3인칭대명사 ellos, ellas가 단일 형태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핵 유형의 대명사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하는 인칭대명사를 D로 보는 Postal(1969)의 주장을 스페인어에 확대 적용한다면 *ellos los coreanos와 같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서 ellos는 D인 셈이 된다. 그럴 경우 *ellos los coreanos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두 개의 D(ellos와 los)를 포함하고 있는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los estos libros, *estos los libros의 비문법성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 앞에 두 개의 D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 3인칭대명사 ellos, ellas 뿐만 아니라 단수 1,2,3인칭대명사 yo, tú, él/ella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동격 관계절이 출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어 동격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Postal의 분석은 *‘I student’처럼 인칭대명사가 단수인 경우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고(이 이유에 대한 최소주의적 설명은 나중에 제시할 Hiraiwa(2017)의 분석을 참조) 오히려 동격 분석이 비문법적인 이유를 더 잘 설명한다. 왜냐하면 ‘I student’와 ‘I, the president of this assembly’간의 문법성 대조가 보여주듯이 단수 가산 명사는 일반적으로 한정(determined)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cf. Puckika 201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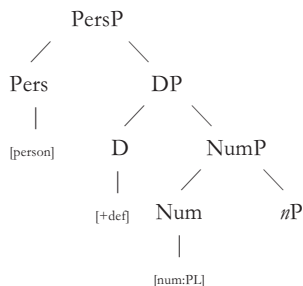
것이다.

그런데 Postal(1969)의 분석은 한 가지 큰 난관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ellos los coreanos의 비문법성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nosotros/vosotros} los coreanos처럼 인칭대명사와 정관사가 동시에 출현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하는 인칭대명사를 '확일적'으로 D로 볼 경우 {nosotros/vosotros} los coreanos도 *ellos los coreanos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D를 동시에 포함하게 되어 비문법적이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로는 문법적이기 때문이다.¹⁰⁾

연구자는 앞에서 제시했던 형태적 복잡성 차이(두 개의 형태소 vs. 단일 형태소)에 입각한 분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앞에서 연구자는 ellos, ellas와 달리 nosotros, vosotros는 두 개의 독립된 형태소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최대투사 유형의 대명사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핵 유형에 속하는 ellos가 D라면 최대투사 유형에 속하는

10) Höhn(2016)은 nosotros los coreanos처럼 인칭대명사와 정관사가 동시에 출현 가능한 이유에 대해 스페인어는 (i)처럼 인칭자질([person])과 한정성자질([+definite])이 각각 서로 다른 핵(Pers와 D)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음 두 핵이(Pers, D) 모두 문자화된 사례가 nosotros los coreanos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탈리아어는 인칭자질과 한정성자질이 단일한 핵(D)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칭대명사와 정관사가 D의 문자화를 놓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출현할 수 없다고(noi ('i) linguisti) 설명한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ellos los coreanos의 비문법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대로 스페인어에서 인칭자질과 한정성자질이 각각 별개의 핵에 내포되어 있다면 *ellos los coreanos도 nosotros los coreanos처럼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i) 명사 핵의 확대투사(extended projection of nominal head)



nosotros, vosotros는 DP로 봐야할 것이다(cf. Torrego & Laka 2015).¹¹⁾ 결국 nosotros, vosotros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SpecDP에 출현하고, 정관사 los는 D에 출현하기 때문에 *ellos los coreanos처럼 D에 두 개의 요소가 동시 출현하는 문제가 초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 (24) a. *[DP_{SPEC} e] [D_D *ellos los*] [NP coreanos]]
 b. [DP_{SPEC} *nosotros*] [D_D *los*] [NP coreanos]]

2. 대안적 분석: 의미적 중복성에 입각한 분석

한편, 3.1에서 제시한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한 분석 이외에 복수 1,2인칭 대명사와 복수 3인칭 대명사의 대조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 듯하다. 앞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한정적 복수 명사가 지닌 의미적 기본 값이 3인칭 이라면 *ellos los coreanos는 3인칭 의미를 지닌 요소가 연달아 출현하는 셈이 된다([_{3pl} ellos] [_{3pl} los coreanos]). 따라서 복수 3인칭대명사 ellos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하기 힘든 이유를 동일한 의미적 자질(즉, 복수 3인칭)을 지닌 요소들이 인접한 위치에 연속적으로 출현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미적 중복 또는 잉여(semantic redundancy)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적 중복 또는 잉여에 입각한 설명은 “el alumno {que/ *quien} estudia francés”와 같은 제한적 관계절에 quien이 출현할 수 없는 이유를 동일한 자질(인칭과 수 자질)을 지닌 선행사와 관계사가 인접한 위치에 연속으로 출현하기 때문으로 보는 RAE(2010:412)와 Brucart(1999:491)의 설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

11) 음운적 측면에서도 복수 1,2인칭대명사를 D로 보기 힘든 근거가 존재한다. 잘 알다시피 스페인어에서 정관사는 강세가 주어지지 않고 정관사와 명사(가령, el libro, las casas)는 하나의 억양 단위(single intonation unit)로 발음된다. 반면에 nosotros, vosotros/ustedes에게는 강세가 부여되고 이들 복수 인칭대명사와 뒤의 복수 명사 사이에는 약간의 휴지(pause)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핵 D와는 차이를 보인다.

La irregularidad de *quien* se suele atribuir a la coincidencia de los rasgos del relativo y los de su antecedente-concretamente, el de personas y el de número-en una posición contigua dentro del mismo grupo sintáctico. (RAE, 2010:412)

En el caso de que entre antecedente y relativo no se interponga preposición, *que* es el único pronombre relativo posible, dado que *quien* y *el cual* quedan descartados por *innecesariamente redundantes*. [...] Que el motivo de la mala formación está relacionado con la duplicación de los rasgos gramaticales del antecedente. (Brucart 1999:491)

한편,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표준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복수 3인칭 대명사는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하기 힘든데 이 역시 불필요한 의미적 중복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5) a. *They poets are our guides.¹²⁾
(Huddleston & Pullum, 2002:374)
- b. ??그들 한국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¹³⁾
(vs. 한국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 c. {Мы / Вы / *Они} русские любим Россию.¹⁴⁾
‘{We/You/They} Russians love Russia’

다만, 의미적 중복성/잉여성에 입각한 설명은 단수 1,2인칭대명사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 12) Radford(2004:40)에 따르면 일부 비표준 영어(영국의 Bristol)에서는 복수 3인칭 they가 ‘인칭대명사-명사’ 구조에 출현하는 것(they boys)이 가능하다. Puckika(2013:86)도 비격식 영어에서 ‘them-N’(See *them* guys over there?, Well *them* biscuits are horrible then?)이 드물지 않게 쓰인다고 말한다.
- 13) 연구자가 한국인 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문장이 한국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총칭적(generic) 의미가 아닌 소수의 특정 그룹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수용성이 좀 더 올라갔다.
- 14) 이 예문은 러시아어 전공 교수가 원어민의 확인을 받아 제공해준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민족을 가리키는 ‘russkie’는 기본적으로 3인칭이다. 따라서 russkie에 1,2인칭 해석을 부여하려면 1,2인칭 ‘my’와 vy’를 앞에 첨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령, *yo el coreano¹⁵⁾의 경우 1인칭(yo) 3인칭(el coreano)의 연속적 출현이므로 *ellos los coreanos와 달리 의미적 중복이나 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적 자질의 중복적 출현 회피에 입각한 설명이 앞서 제시했던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한 설명보다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을 듯하다.

3.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이번에는 3.1에서 제시한 형태적 복잡성 차이에 입각한 분석이 아래와 같은 이탈리아어 예문의 비문법성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cf. 1장의 (18)과 관련).

- (26) a. *Noi gli¹⁶⁾ italiani siamo molto gentili.
we the-pl Italians be-1pl very kind
'We Italians are very kind.'
b. *Voi gli italiani siete molto gentili.
you the-pl Italians be-2pl very kind
'You Italians are very kind.'

(26a,b)는 스페인어의 “Nosotros los italianos somos muy simpáticos”, “Vosotros los italianos sois muy simpáticos”에 각각 상응하는 문장이지만 둘 다 비문법적이다. 이탈리아어에서 noi, voi는 복수 1,2인칭대명사로서 강세가 부여되고 아래에서 보듯이 인접한 위치에 동사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osotros, vosotros처럼 강대명사(strong pronoun)로 분류된다.

- (27) Guadagnano più soldi di {noi/voi}.
earn-3pl more money than {we/you}

15) 단, yo와 el coreano 사이에 휴지(pause)가 있으면 문법적(yo, el coreano)이 된다.

16) s+자음으로 시작하거나, ps-, pn-, gn- and z-로 시작하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면 복수 관사는 gli(예: gli stadi, gli amici)가 되고, 자음으로 시작하면 i(예: i linguisti)가 된다.

“They earn more money than {us/you}”

(cf. Ellos ganan más dinero que {nosotros/vosotros})

그러나 형태적 복잡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nosotros, vosotros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반면에 noi, voi는 단일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noi, voi가 단일 형태소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26a,b)가 비문법적인 이유가 *ellos los coreanos가 비문법적인 이유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일 형태소로 구성된 noi, voi도 스페인어의 복수 3인칭대명사 ellos처럼 핵 유형의 범주 D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26a,b)의 비문법성은 noi, voi와 정관사 gli가 D에 동시에 출현하기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28) *_{DP}[_D noi gli] [_{NP} italiani]]

그리고 앞서 1장의 예문 (18)에서 noi, voi가 복수 명사 앞에 출현하면 정관사는 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도 핵 D에 두 개의 요소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29)=(18))

- (29) a. Noi ('i) linguisti studiamo la natura del linguaggio.
b. Voi ('i) linguisti studiate la natura del linguaggio.

한편, 1장 예문 (17)에서 보았듯이 이탈리아어에서는 복수 명사(linguisti)가 1,2인칭 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스페인어와 달리 자신의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의 명시적 출현을 필요로>(*noi linguisti studiamo)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 명사 자체의 의미적 기본 값은 3인칭이므로 i linguisti가 복수 1,2인칭으로 해석되면서 동시에 동사에 복수 1,2인칭 일치를 유발하려면 우선적으로 명시적 통사부에서 i linguisti 앞에 noi, voi의 출현

17) 이 분석은 영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영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에서 we/you와 정관사 the는 함께 출현할 수 없는데(we ('the) linguists) 이 이유 또한 단일 형태소인 we/you가 D여서 정관사와 함께 출현하면 명사구 내에서 두 개의 D가 연속 출현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noi, voi가 i linguisti 앞에 출현하게 되면 명사 앞에 두 개의 D(noi/voi와 i)가 동시에 출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i linguisti가 1,2인칭으로 해석되면서 동시에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먼저 명시적 통사부에서 noi, voi가 i linguisti 앞에 출현하여 동사에 복수 1,2인칭 일치치를 유발한 다음 나중에 PF에서 삭제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i linguisti 앞에 noi, voi가 출현하는 것 ({*noi/*voi} i linguisti)부터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명시적 통사부에서는 i linguisti가 단독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동사는 복수 3인칭 명사의 기본적 의미 값인 복수 3인칭을 따라 복수 3인칭으로만 표시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탈리아어에서는 핵 유형에 속하는 noi, voi와 정관사 i의 동시 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i linguisti에게 복수 1,2인칭 해석을 부여하려면 최후수단 전략(last resort strategy)에 호소하는 도리밖에 없다. 즉, 최후수단으로 정관사 i를 삭제해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noi, voi를 삽입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어에서 복수 명사에게 1,2인칭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명사구 내에 noi, voi를 삽입할 경우 복수 정관사 i가 함께 출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cf. (29)).

IV. ‘대명사-명사구’ 구조 형성 방식

3.1에서 연구자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nosotros, vosotros는 최대투사 유형의 DP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들과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어떤 방식을 통해 결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하자.

앞서 1장에서 본 것처럼 “{Nosotros/Vosotros} los españoles {estamos/estáis} orgullosos de Rafael Nadal”과 같은 예문에서 nosotros, vosotros의 출현은 수의적이다. 논항(argument)과 달리 부가어(adjunct)의 출현은 필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nosotros, vosotros가 DP los españoles에 부가(adjunction)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부가를 통

첫째, 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nosotros, vosotros*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통사부에서 *los españoles* 앞에 출현한다고 봐야만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현이 의무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이들을 부가어로 보긴 힘들다.

둘째, 부가는 통사적으로 같은 요소를 만들어 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XP가 YP에 부가되면 그 결과물은 YP가 된다. 예를 들어 *¡P echar la siesta*에 *PP después de comer*를 부가하면 그 결과물인 *echar la siesta después de comer*는 *¡P*다. 따라서 만약 *DP los españoles*에 *nosotros, vosotros*가 부가된다고 한다면 부가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범주는 *los*를 핵으로 하는 *DP*가 된다. 그런데 한정적 복수 명사구에 부여된 의미적 기본 값은 3인칭이므로 *nosotros, vosotros*가 *los españoles*에 부가된다고 할 경우 동사에 복수 1,2인칭 일치가 일어나는 사실을 설명하기 힘들게 된다. 즉, 동사(정확히 말해 *T*)에 인칭과 수의 일치를 유발하는 것은 주어 *DP*의 핵 *D*가 지니고 있는 *ø*-자질이므로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DP*의 핵 *D*가 복수 1,2인칭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 구조에서 보듯이 *nosotros, vosotros*가 *DP*에 부가된 구조에서는 *DP*의 핵 *los*가 복수 1,2인칭 자질을 획득하기 힘들다. 그 결과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명사-명사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복수 1,2인칭대명사와 한정적 복수 명사가 결합하는 방식은 부가가 아니라고 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남은 방식은 병합(merge)일 것이다. 그런데 Chomsky(2013,2015)에 따르면 병합은 표찰(labeling)로 이어져야 한다. 두 요소 A와 B가 병합하여 새로운 통사체 α 가 만들어지면 그 통사체는 표찰을 부여받아야만 하는데 만약 표찰을 부여받지 못하면 접합면(interface)에서 적절한 해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도출이 파탄된다는 것이다. 병합에 참여하는 두 요소 중 하나는 핵(X^0)이고 나머지가 최대투사(YP)이면 최소탐색(minimal search)에 의거하여 핵이 새로운 통사체의 표찰이 된다(cf. (31a)). 반면에, 병합하는 두 요소 모두 최대 투사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이동하여 남은 요소가 통사체의 표찰이 되거나(cf. (31b)),¹⁸⁾ 둘 모두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공유하는 자질(shared prominent feature)이 통사체의 표찰이 된다(cf. (31c)).

- (31) a. α XP
 $\begin{array}{cc} / & \backslash \\ X & YP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 / & \backslash \\ X & YP \end{array}$
- b. α β
 $\begin{array}{cc} / & \backslash \\ X & YP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 / & \backslash \\ XP & YP \\ & / \backslash \\ & \cancel{XP} \quad YP \end{array}$
- c. α $\langle F, F \rangle$
 $\begin{array}{cc} / & \backslash \\ XP & YP \\ [F] & [F]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 / & \backslash \\ XP & YP \\ [F] & [F] \end{array}$

18) Chomsky는 이동한 요소의 복사체(copy)는 표찰 알고리즘에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copies are invisible to LA).

Hiraiwa(2017)는 Chomsky(2013,2015)의 표찰 알고리즘(labeling algorithm)에 입각하여 영어에서 ‘대명사-명사구’ 구조가 *we linguists*처럼 두 요소 모두 복수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I linguist*처럼 둘 다 단수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32) The Plural Restriction

In Pronoun-Noun structures, both the pronoun and the noun must be plural. (Hiraiwa 2017: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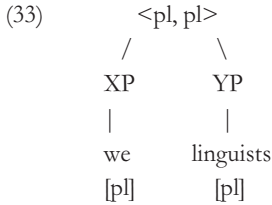
다만, Hiraiwa는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하는 인칭대명사를 D로 분석하는 Postal(1969)과 달리 인칭대명사를 최대투사로 보며 무관사 복수 명사¹⁹⁾도 최대투사로 본다. 따라서 복수 인칭대명사와 무관사 복수 명사가 병합하면 대칭적 구조의 통사체 { α XP, YP}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때 둘 중 어느 것도 이동하지 않으므로 통사체의 표찰은 둘이 공유하는 자질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we linguists*는 최대투사 *we*와 최대투사 *linguists*가 병합하여 대칭 구조의 통사체 { α *we*, *linguists*}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두 요소의 핵이 공유하는 자질은 복수 자질(plural feature)이므로 이 자질이 통사체 α 의 표찰이 된다는 것이다.

19) 그는 복수 무관사 명사가 최대투사라는 근거로 관계절에 의해 수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i) [*we/us*] [linguists who are in the Ray and Maria Stata Center.]

관계절에 의해 수식되는 사실이 복수 무관사 명사가 최대투사인 근거가 된다고 보는 이유를 추정하자면 관계절은 선행사에 부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이때 최대투사(CP)인 관계절이 핵에 부가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절이 복수 무관사 명사에 부가된다는 사실은 복수 무관사 명사도 최대투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Hiraiwa는 인칭대명사 *we*, *you*를 최대투사로 보는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Huddleston & Pullum(2002:430)에서 제시된 예에서 보듯이 인칭대명사가 관계절에 의해 수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칭대명사가 최대투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a. {*I/We*} who have read the report know that the allegations are quite unfounded.
b. He who controls testosterone controls the sexual universe.



한편, Hiraiwa는 단수 무관사 명사와 단수 인칭대명사는 수 자질(number feature) 자체를 아예 지니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I linguist의 경우 I도, linguist도 수 자질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와 linguist가 병합하여 통사체 $\{_{\alpha} \text{I, linguist}\}$ 를 형성하더라도 두 요소간의 공유 자질이 없기 때문에 통사체가 표찰을 부여받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비문법적이 된다고 설명한다([I]는 자질이 없음을 의미한다).²⁰⁾

(34) *I_[] linguist_[]

이번에는 Hiraiwa의 분석이 스페인어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를 주어로 사용되는 nosotros los coreanos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주장한 것처럼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nosotros는 최대투사 유형(DP)에 속하므로 nosotros와 los coreanos의 병합으로 형성되는 통사체는 대칭 구조 $\{_{\alpha} \text{XP, YP}\}$ 를 지니게 된다. 병합을 한 후 nosotros와 los coreanos는 둘 다 이동하지 않으므로 통사체의 표찰은 각자의 핵이 공유하는 자질을 통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²¹⁾ nosotros의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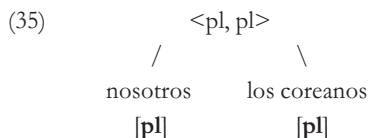
20) Hiraiwa(2017:237), “If the pronoun and the bare noun are both singular, and, furthermore, if the (default) singular specification is due to a lack of a number feature, LA fails again because Minimal Search fails to find a shared matching feature and hence the syntactic object α is unlabeled.”

하지만 연구자는 왜 단수 명사는 수 자질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복수 자질만 자질로 인정되고 단수 자질은 자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Hiraiwa의 근거제시가 필요할 듯하다.

21) ‘대명사-명사구’ 구조가 목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인칭대명사가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남아 있는 한정적 복수 명사구에 의해 표찰이 정해질 수 있다.

(i) Ellos odian a [_{α} nosotros los sintactistas]
 → Ellos *nos* odian a [_{α =DP} ~~nosotros~~ los sintactistas]

과 los coreanos의 핵은 복수 자질([pl])을 공유하므로 통사체의 표찰은 <pl, pl>로 정해지게 되어 접합면(interface)에서 적절한 해석을 받을 수 있게 된다.²²⁾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표찰 알고리즘에 입각한 Hiraiwa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부딪히는 듯하다. nosotros와 los coreanos가 병합하여 형성된 통사체 {_a nosotros, los coreanos}는 둘이 공유하는 복수 자질을 통해 표찰 (<pl, pl>)은 부여 받을 수 있지만 nosotros los coreanos가 문장의 주어로 기능할 때 동사가 복수 1인칭으로 표시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에 부딪히는 듯하다. 왜냐하면 nosotros와 los coreanos가 공유하는 자질은 복수 자질이 아닌 1인칭 자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nosotros는 복수 1인칭 자질을 지니는 반면에 los coreanos의 의미적 기본 값은 복수 3인칭이기 때문에 둘이 공유하는 복수 자질은 동사에게 수의 일치(복수)는 유발할 수 있지만 1인칭의 일치(1인칭)는 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Nosotros los coreanos somos felices”와 같은 문장에서 동사가 somos(복수, 1인칭)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주어 DP의 핵이 복수 자질과 1인칭 자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앞서 연구자는 형태적 근거와 통사적 근거를 들어 nosotros는 핵이 아닌 최대투사 유형(DP)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nosotros가 ‘대명사-명사구’ 구조의 핵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Nosotros los coreanos somos felices”에서 nosotros가 명사구의 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복수 1인칭 somos로 표시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2) 연구자가 보기에 둘은 한정성 자질(definite feature)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의 핵이 공유하는 복수 자질과 한정성 자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두드러진(prominent)” 자질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nosotros와 los coreanos의 병합을 통해 형성되는 대칭적 구조의 병합체 α 에게 두 요소가 공통적으로 지닌 복수 자질을 통한 표찰(<pl, pl>)이 부여되게 되면 여기에 추가하여 두 요소에 공통적이지 않은 다른 자질들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보자. 그럴 경우 nosotros는 자신만이 지닌 1인칭 자질을 los coreanos의 핵 los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인칭 자질을 획득하게 된 핵 los는 다시 동사에 1인칭 일치치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가 말하는 이러한 자질 공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와 같은 개념이다. 가령, DP와 TP가 병합하여 TP가 되면 기존의 TP는 중간투사 T'로 전환됨으로써(DP + TP $\rightarrow$ [TP DP T']) DP는 새롭게 형성된 TP의 지정어가 되고 그 결과 지정어-핵 일치를 통해 T가 DP로부터 자질을 물려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 (36) (i) Merge: nosotros + los coreanos
(ii) Labeling by feature sharing: {<pl, pl> nosotros, los coreanos}
(iii) 1st feature transmission: {<pl, pl> nosotros, **los** coreanos}
-
- (iv) Agreement between D & T:
- {<pl, pl> nosotros, **los** coreanos} T(=somos)

[1st pl.]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대명사-명사구’ 구조와 관련한 세 가지 이슈를 통사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첫째, los españoles와 같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때 동사가 복수 1,2인칭으로 표시되는 소위 ‘불일치(unagreement)’ 또는 ‘1,2인칭 일치’ 현상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 현상이 스페인어가 허용

하는 '대명사-명사구'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즉,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 ({nosotros/vosotros/ustedes} los españoles)에 입각하여 '불일치' 현상은 명시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 한정적 복수 명사구 앞에 복수 1,2인칭대명사가 출현하여 동사에 복수 1,2인칭 일치를 유발한 후, 음성형태부(PF)에서 삭제됨으로써 문자화/음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스페인어에서 복수 1,2인칭대명사(nosotros, vosotros/ustedes)만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할 수 있고 복수 3인칭대명사(ellos, ellas)와 단수 1,2,3인칭대명사(yo, tú, él/ella)는 출현할 수 없는 이유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복수 1,2인칭대명사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어휘인 반면에 복수 3인칭대명사와 단수 1,2,3인칭대명사는 단일 형태소로 구성된 어휘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퍼즐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명사에 선행하는 인칭대명사(we linguists)를 D로 보는 Postal(1969)의 분석을 수용하여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수 3인칭대명사와 단수 1,2,3인칭대명사는 핵 유형의 대명사(D)이고 따라서 이들이 '대명사-명사구' 구조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명사구 내에 출현하게 되면 두 개의 D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결과(" [DP [D ellos] [D los] [_{NP} estudiantes]]])가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수 1,2인칭대명사는 최대투사 유형의 대명사(DP)이므로 명사구 내에 출현하더라도 두 개의 D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고의 분석은 Postal(1969)의 분석을 스페인어에 적용하고자 할 때 nosotros los coreanos처럼 인칭대명사와 정관사가 동시에 출현하는 사례를 설명할 때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까지도 해결해주는 부수적 이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복수 1,2인칭대명사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대명사-명사구'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Chomsky(2013,2015)의 표찰알고리즘에

입각한 Hiraiwa(2017)의 분석은 ‘대명사-명사구’ 구조가 보여주는 ‘1,2인칭 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부딪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복수 1,2인칭대명사와 한정적 복수 명사구가 ‘대명사-명사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대칭적 병합을 하면 표찰 달기(labeling)와 함께 각자가 지니고 있던 자질까지도 공유하게 된다고 가정한 다음 이러한 자질 공유 방식을 통해 한정적 복수명사구의 핵인 정관사가 복수 1,2인칭대명사의 인칭 자질을 획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사에 1,2인칭 일치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광섭(2018), 『최소주의와 최후의 수단』, 서울: 한국문화사.
- Ackema, Peter & Ad Neeleman(2013), “Subset controllers in agreement relations,” *Morphology*, Vol. 23, pp. 291–323.
- Choi, Jae Hoon(2014), *Pronoun-noun constructions and the syntax of D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 Cardinaletti, Anna & Michael Starke(1999), “Clitics in the languages of Europe,” Henk van Riemsdijk(ed.), *The typology of structural deficiency: On the three classes of pronouns*, Berlin: Mouton de Gruyter, pp. 145-233.
- Chomsky, Noam(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K. Hale & S. J. Keyser(ed.),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IT Press, pp. 1-52.
- Chomsky, Noam(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_____(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Vol. 130, pp. 33-49.
- _____(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Elisa Di Domenico, Cornelia Hamann, and Simona Matteini(ed.),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ur of Adriana Belletti*,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p. 1-16.
- Déchine, R. & M. Wiltschko(2002), “Decomposing pronouns,” *Linguistic Inquiry*, Vol. 33, No. 3, pp. 409-442.
- Emilia, Hilgert(2012), “Nous autres/ vous autres/ eux autres, pronom catégoriel,” *Congrès Mondial de Linguistique Française*, pp. 1777-1792.

- Ordóñez, Francisco(1997),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 in Spanish and other Romance languages*,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Hiraiwa, Ken(2017), “On So-Called ‘So-Called’ ‘So-Called Pronouns,’” *MITWPL*, Vol. 80, pp. 233-242.
- Höhn, Georg(2016), “Unagreement is an illusion: Apparent person mismatches and nominal structur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Vol. 34, No. 2, pp. 543-592.
- Höhn, Georg *et al.*(2017), “Greek and Romance unagreement in Calabria,” *Journal of Greek Linguistics*, Vol. 17, pp. 263-292.
- Huddleston, Rodney & Geoffrey Pullum(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rtado, Alfredo(1985), “The unagreement hypothesis,” Larry King and Catherine Maley(ed.), *Selected papers from the Thirteenth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87–211.
- Luján, Marta(2004), “Determiners as Pronouns,” Ana Castro *et al.*(ed.), *Romance, Op. 47: Collected Papers on Romance Syntax*, pp. 129-148.
- Maiden, Martín & Cecília Robustelli(2000), *A Reference Grammar of Modern Italian*, New York: Routledge.
- Martínez, José Antonio(1999), “La concordancia,” Bosque, I. & V. Demont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1*, Real Academia Española/Espasa Calpe, pp. 2695-2786.
- Ordóñez, Francisco & Esthela Treviño(1999), “Left dislocated subjects and the prodrop parameter: A case study of Spanish,” *Lingua*, Vol. 107, pp. 39-68.
- Postal, Paul(1969), “On so-called pronouns,” D. Reibel & S. Schane(ed.), *Modern Studies in English*,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201-224.
- Puckica, Jérôme(2013), “The English possessives and the determiner v. pronoun distinction,” *Cercle*, Vol. 29, pp. 67-97.
- Quirk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Y: Longman.
- Radford, Andrew(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2004), *Minimalist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al Academia Española(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 Madrid: Espasa Calpe.
- _____(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Manual)*, Madrid: Espasa.
- Saab, Andrés(2013), “Anticoncordancia y sincretismo en español,” *Lingüística [online]*, Vol. 29, No. 2, pp. 191-229.
- Szabolci, Anna(2007), “Hidden in plain sight: Overt subjects in infinitival control and raising complements,” <http://ling.auf.net/lingBuzz/000445>.
- Torrego, Esther(1996), “On quantifier float in control clauses,” *Linguistic Inquiry*, Vol. 27, pp. 111-126.
- Torrego, Esther & Itziar Laka(2015), “The syntax of Φ -features: Agreement with plural DPs in Basque and Spanish,” *Ibon sarasola Gorazarre, Homenatge, Homenage*, Bilbao, UPV/EHU, pp. 633-646.

〈인터넷 자료〉

<http://etimologias.dechile.net/?nosotros>, <http://etimologias.dechile.net/?vosotros>
<https://en.wiktionary.org/wiki/ellas#Spanish>

심상완

단국대학교 유럽중남미학부 스페인어전공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2일

Some Issues Related to the ‘Pronoun-Nominal Phrase’ Structure in Spanish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20), “Some issues related to the ‘pronoun-nominal phrase’ structure in Spanis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2), 1-32.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ree issues related to the so-called ‘pronoun-nominal phrase (PN)’ structure in Spanish. First, we try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so called ‘unagreement’ phenomenon from a syntactic point of view; we argue that this phenomenon is deeply related to the pro-drop properties; we also discuss whether our analysis can be applied to other languages such as Korean, English and Italian. Second, based on the difference in morphological complexity we offer an analysis of why only 1st/2nd plural personal pronouns are allowed to appear in the PN structure, whereas 3rd plural personal pronouns and 1st/2nd/3rd singular personal pronouns are not allowed to appear in this structure; we claim that our analysis based on the morphological complexity can also explain why Spanish and Italian show a big difference regarding the PN structure; furthermore, we point out that Postal (1969)’s analysis faces a difficulty in explaining the PN structure like ‘nosotros los coreanos’ and then argue that this problem can also be solved by our analysis. Finally, from a minimalist perspective we discuss in more detail how personal pronouns and definite plural NPs combine to form the PN structure and how the 1st/2nd agreement is triggered on the verb. For this, we first point out that Hiraiwa (2017)’s analysis based on the labeling algorithm (Chomsky 2013, 2015) is not 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unagreement’ phenomenon and then suggest an alternative.

Key words pronoun-nominal phrase structure, unagreement, morphological complexity, Labeling Algorithm